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2018. 10

충남연구원

Ⅰ. 출장개요

○ 목　적: 프랑스 지방정부 인구정책의 사례조사
○ 기　간: 2018. 9. 12 ~ 9. 23
○ 방문국: 프랑스
○ 방문자: 이관률, 임준홍 박사
○ 일　정

날짜	세부 일정	비고
9월 12일(수)	인천 출발	
9월 13일(목)	비행기 연착으로 13일 오후 파리 도착	
9월 14일(금)	파리 도시박물관	
9월 15일(토)	생드니 스탕시 정원도시 현장조사	
9월 16일(일)	전체 일정 확인 및 조정	일요일
9월 17일(월)	그리니시 공동주택 인터뷰 및 현장방문	
9월 18일(화)	이브리시 주택재정비 인터뷰 및 현장조사	
9월 19일(수)	EUP: Cité Descartes 세미나	
9월 20일(목)	INED 인구정책세미나	
9월 21일(금)	후베시 도시재생 사례조사	
9월 22일(토)	파리 출발	
9월 23일(일)	인천 도착	

Ⅱ. 출장결과

1. 파리 도시박물관 방문

○ 일　　시: 2018년 9월 14일(금)

○ 목　　적: 파리 도시형성과정의 이해

○ 주요내용
- 파리 도시박물관을 방문하여 르네상스 이후 파리의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변화

되어 왔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음.

- 파리 도시박물관에서 특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는 20세기 초반부터 사회주택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공공차원에서 공급을 해 왔다는 사실임.
- 그리고 사회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회적 통합을 가장 우선시 하였고, 사회주택의 건축물이 공간적 상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측면이 흥미로웠음.
- 파리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라는 측면, 그리고 대학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호텔과 대학을 이용한 도시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었음.
- 2024년 개최될 파리 올림픽을 도시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 관련사진

2. 생드니 스탕시 정원도시 현장조사

○ 일　　시: 2018년 9월 15일(토)

○ 담 당 자: Milena CRESPO(memoiresdecitejardin@stains.fr)

○ 목　　적: 정원도시의 주거실태 파악

○ 주요내용

- 생드니 스탕시 정원도시는 파리 외곽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 이 정원도시는 영국에서 제안된 정원도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세워진 도시임.
- 2차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성된 지역

임. 즉 당시의 주거, 위생, 웰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 정원도시의 지하광장은 극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주민들이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정원도시의 공공주택(social housing)이며, 일반과 임대로 구분이 됨. 지방정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관리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음.
- 정원도시의 주택은 한 가지 느낌이 들지 않게 건물의 형태를 12가지로 구분하여 건축하였고, 공간적 배치는 좌우상하가 대칭되는 데칼코마니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전체 20헥타르 중에서 25%가 공동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채광을 좋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조성 당시에서는 난방이 되지 않았으나, 2005~2006년 개보수를 통해 파사드 및 이중창의 단열공사를 하였음.
- 1개의 건물에는 4~5개의 주택이 입주해 있고, 주택의 수 만큼 정원이 공급되어 있는데, 1집당 35㎡가 분양되어 있음.
- 현재 정원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주차문제와 정원이용료 등의 갈등임. 과거에는 정원이용료를 받지 않았으나, 현재는 1㎡당 1유로를 징수하고 있음.
- 2-3층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뒤편의 정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동정원을 이용할 수 있고, 임대료는 동일함. 현재 정원도시 내 공동정원은 총 7개가 조성되어 있음.
- 2008년부터 정원도시에서는 공간의 재생해서 역사적으로 정비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과거의 고찰과 미래의 계획이라는 지역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의 생애사 및 사진을 가지고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시민들이 가자고 있는 아카이브를 적극 발굴하고 있음. 이 과정에는 지역고등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시 사 점

- 정원도시는 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생, 웰빙의 측면에서 조성이 되었음.
- 공간구조를 통합적으로 구성을 하였지만, 획일적 이미지를 갖지 않게 노력하였음.
- 최근에는 재생의 관점에서 공간정비를 함과 동시에 아카이브 구축 및 스토리를 개발하고 있음.
- 정원도시는 도시외곽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관련사진

3. 그리니시 공동주택 인터뷰 및 현장방문

○ 일　　시: 2018년 9월 17일(월)

○ 담 당 자: Emilie VANNIER, Léa ZNATY(lznaty.pro@gmail.com)

○ 목　　적: 사회주택, 이민자지원정책

○ 주요내용

- 그리니(Grigny)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거단지의 문제는 유지·보수가 되지 않는 점, 열악하고 비합법적인 주거임대 양상(1주택 내에 여러 가족의 거주),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 등임.
- 그리니시는 2014년 관련법을 제정하여 민간주택도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민간주택을 시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현재 그리니시의 공동주택에는 총 5000세대가 공급되어 있고, 크게 2-3개의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약 17,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음.
- 아파트 형태의 그리니시 공동주택에는 주로 수입이 없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 전체 주택 중에서 임대주택은 3500세대이고, 주로 파리의 슬럼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이주하였음.
- 당초 그리니시는 8000세대를 계획했으나 최종적으로 5000세대만 조성되었음. 5000세대 중 350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조성하여 파리의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중산층에게 공급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현재는 중산층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저소득층만 거주하고 있음. 저소득층이 증가함에 따른 투가현상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 이민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다시 개별 방으로 나누어 불법 임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1㎡당 1000유로로 분양을 받은 후 방 5개를 1개당 3000~4000유로로 분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파리의 1㎡당 10000유로보다 비싼 현상이 발생하게 됨.
- 그리니시에는 골재산업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도 좋았음. 그리니시에는 20세기 초반 이탈리아, 포르투칼 등의 이미 세대가 많았음.
- 1980년대부터 공동주거단지가 나빠지기 시작해 2000년대부터 투기의 세력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제재를 하기 시작하였음.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이 9㎡/1인인데,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그리니시에서는 불법임대의 문제로 인해 실제 단지에 몇 명이 거주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전기세 및 수도세로 간접적 파악을 하고 있음. 그리고 초

등학생 아이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도 있음.

- 그리니시의 단지 중 위쪽 단지는 문제의 심각수준이 큰 반면에, 아래쪽 단지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2개의 단지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리니시는 공동소유구간의 길, 가로등, 공원 등을 직접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그리니시의 관리비용은 파리의 1㎡당 42유로보다 더 큰 60유로가 필요함. 이는 단지가 슬럼화로 인해 더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공동주거민의 관리비 중 65~70%는 물세와 전기세로 구성이 되어 있음. 에너지는 지역방식으로 전환하여 큰 비중이 들지 않고 있음.
- 정부의 공동주택의 불법임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사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최근에는 연간 250세대를 구매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2017년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 그 이후 그리니시는 아파트개보수를 통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동주거시설의 안전에 대한 지원은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 당초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파리의 부자, 초기 이민자로 다양하였지만, 최근에는 불법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그리니시 공동주택의 장 시급한 사항은 이민자 및 거주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임. 그리고 거주자가 누릴 수 있는 각종 권한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주거지로 이동시키는 것임.
- 그리니시는 임대를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의 조건과 임대주택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를 임대자와 세입자에 적극 홍보하고 있음.
- 그리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보조금을 받게 하는 방법,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불어 수업을 받게 하는 방법 등 부분적이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그리니시에서는 총 80개 국각의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들 구각별 언어의 홍보자료 및 각자의 커뮤니티별 제공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음.
-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는 공동공간의 확보에 초점을 두고 공동주택단지의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2015년에는 350대의 주차장 마련, 막혀 있는 공간의 연결통로 확보, 단지(아래위) 간의 공간연결, 쓰레기 문제 해결 등의 대안을 마련하였음. 주차장을 확보하게 된 이유는 주차문제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리니시의 경우 이민자의 비중이 60% 정도임. 그러나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세금 등이 확대되는 측면과 일정하게 인구가 유지되는 측면이 있음. 그리니시는 이민자들의 정주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정주성이 낮은 하나의 지표로 초등학교을 입하지만, 졸업하지 못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니시는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도시 전체의 이미지가 불량해지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산층이 이주해 오기를 희망하고 있음.

○ 시 사 점

- 대도시 외곽지역에는 이민자가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직면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이민자에게 기본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취하고 있고, 이민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지 않고 있음.
- 오히려 이민자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민자로 인해 도시이미지 나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었음.
-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안전시설에 대한 기반지원은 국가가 지원을 하는 등 역할분담이 되어 있음.

○ 관련사진

4. 이브리시 주택재정비 인터뷰 및 현장조사

○ 일　　시: 2019년 9월 18일(화)

○ 담 당 자: Alain　COSTES(atelier15.ivry@gmail.com),
Agnès POLINE(atelier15.ivry@gmail.com)

○ 목　　적: 주택재정비 현장 및 주민참여 내용 조사

○ 주요내용

- 이브리(Ivry)시는 2000년도에 “생각이라는 지원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정책을 시행하였음. 이 정책은 지방정부, 건축기관, 시행기관의 3자 협력으로 추진되었음.
- 방문지역은 당초 시 소유의 주택이었으나, 불법점거가 이루어지고 세금 지불은 되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문제가 발생한 지역임.
- 프랑스는 영구임대, 사회주택, 공공주택을 사회통합관점(social mixed approach)에서 접근하고 있음. 이는 공공주택과 도시를 연결하는 고리임.
- 방문지역의 재개발은 13년간 진행되었고, 기존 거주자는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였음. 재개발의 기간이 긴 것은 기존 거주자의 수요충족과 대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임.
- 파리 전체 주택 중 40%가 임대주택인데, 이들 임대주택은 공공 혹은 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그 외 분양주택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음.
- 방문지역의 재개발은 목조건축과 환경건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고, 재개발주택으로 단절된 도시공간구조를 연결하는 것을 강조하였음.
- 당초 재개발주택지는 경사가 진 곳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단절되어 있었으나, 재개발을 통해 위와 아래의 통로를 만들어서 연결성을 제고하였음. 이 연결통로로 인해 슬럼지역이 빠르게 회복하게 되었음.
- 재개발 주택은 모두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6개의 방이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현재 총 48호 세대가 조성되어 있음.
- 파리시민들은 대형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없음. 이는 이민자가 주로 큰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임.
- 현재 재개발 주택단지는 시가 관리를 하고 있음. 2008년부터 시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이라는 관점에서 그리넷법을 제정하였음.
- 그리넷법을 통해 주거환경권과 주거에너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바람을 통해 공기순환을 하고, 외벽은 콘크리트 안은 목조 등을 사용해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 방문지역은 공기순환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조성한 사례지역임. 한편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해 이용하고 있음.

- 현재 14가구는 사회주택으로 분양되었으나, 나머지는 협동조합으로 분양을 하고 있음. 협동조합의 분양은 새로운 임대가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음.
- 협동조합으로 분양하는 경우, 세금은 20%에서 5.5%로, 대출은 20~30년으로 연장이 가능함.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것을 제한하였음.
- 반면 민간주택은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도 장기간 은행대출을 통해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개인의 수입에 따라 차등적임. 임대자는 소득의 33% 이내에서 주택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만약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소개 등의 복지도 함께 공급하고 있음.
- 방문지역의 주택재개발은 주민참여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건물폐자재를 새로운 담으로 재활용하게 되었음.
- 그리고 주택재개발 내에 공동주택(share house) 3개 가구를 확보하였음. 이 공동주택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마련한 주택으로 1인당 200유로로 이용이 가능한 것임.

○ 시 사 점

- 도시 내 버려진 공간을 시가 선수매하고,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주택재생을 하였음.
- 단순한 주거재생이 아니라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주거환경권과 주거에너지권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입주자의 개인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직업소개를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사회주택 내에도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쉐어하우스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음.

○ 관련사진

5. EUP: Cité Descartes 세미나

○ 일　　시: 2018년 9월 19일(수)

○ 담 당 자: École d'urbanisme de Paris, Jean-Claude Driant(driant@u-pec.fr)

○ 목　　적: 프랑스의 도시정책 및 사회주태정책 파악

○ 주요내용

- The Residence Social in France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음.
- 프랑스에는 3,500만 정도의 주택이 있고, 이중 500만 정도의 주택이 공공주택임. 따라서 전체 주택에서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 정도임.
- 프랑스의 주택 구성을 살펴보면, 자가가 50~60%, 공공임대주택이 17%, 그리고 사적 임대주택이 20% 정도임.
- 전체 600여개의 공공주택관리기관이 있음. 이중 250개 정도는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파리 아바타가 대표적 공공기관임. 그리고 240개는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100개는 민간과 공공의 3섹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당초 공공주택은 민간영역에서 시작되었음. 즉 민간기업의 사장이 노동자의 주거지역 조성차원에서 시작하였음.
- 공공주택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 근거는 모두 하나로 되어 있음.
- 매년 공공주택은 7~8만개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신규 주택공급의 25~3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매년 7.5~8만개의 공공주택이 증가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 공공주택의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10~20년대 사이임. 2차세계대전 이후 대부분 임대 중심의 주택으로 변화되었음. 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주로 자가소유 형태의 주택이었음.
- 프랑스는 전반적으로 높은 건물이 없음. 이는 유니버셜 모델로 접근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음.
-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 공공주택은 차상위 계층에만 공급하지만, 프랑스는 일반적인 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은 프랑스와 유사함.
- 공공주택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얼마의 비용지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거주하게 할 것인가를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건물의 건축연도에 따라 주거의 임대료가 상이함.
- 그리고 도시별로 공공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상이함. 예컨대 파리의 경우 1㎡당 24유로이지만, 니스는 1㎡당 15유로임. 일반 도시는 비슷하지만, 대도시는 비싼 경향이 있음.
- 공공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수입과 관계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물량의 제한으로 다소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공공주택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대부분 은행 및 금융기관이 시행하고 있음.
- 1960년대와 70년대에 공급된 공공주택은 재생을 해야 하는 상황임. 이들 주거지에는 노동자와 사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이든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 따라서 스스로 재생을 희망하고 있음.
- 현재 프랑스의 경우 180만명이 공공주택을 기다리고 있음. 실제 매년 공급되는 세대는 5천세대 정도임. 따라서 평균 4년 정도 대기해야 하는 실정임. 파리는 65천명이 공급을 기다리고 있지만, 공급은 4천에 불과함.
- 한편 프랑스의 소도시와 농촌의 경우, 임대료와 소유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발생함. 이런 이유로 인해 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주택이 버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시 사 점

- 프랑스의 경우 사회주택과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통상 사회주택으로 지칭하고 있음.
- 프랑스는 1975년을 기점으로 신도시 정책에서 개별지역으로 주택공급방식을 변경하였고, 주거에 일자리 및 복지의 개념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음. 즉 주거+일자리+복지+교육의 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의 공공주택은 주로 임대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고, 매우 다양한 형태의 관리기관이 존재하고 있음.
- 공공주택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지만, 희망자가 많아서 절대적으로 공

급이 부족한 실정임.

○ 관련사진

6. INED 인구정책세미나

○ 일　　시: 2018년 9월 20일(목)

○ 담 당 자: Jaques　VERON(veron@ined.fr)

○ 목　　적: 프랑스 인구정책, 출산양육정책 세미나

○ 주요내용

- 인구와 환경, 그리고 세대변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음.
- 인구연령의 비대칭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에 기인을 한 것임. 최근의 특징은 출생률 감소임.
- 인구구조의 변화는 수명증가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출생의 감소의 2가지 요인에 기인함.
- 인구문제는 구조적 문제이지만, 사회적 문제임. 이 사회적 문제는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와 연계됨.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간의 갈등으로 이어짐.
- 나이는 태어난 날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살아가야 할 날을 의미하기도 함. 나이는 태어난 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날이 더 중요함. 생물학적 나이보다 인지적 나이가 더 중요함.
- 나이에 대한 인지는 사회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무엇

보다 중요함.

- 절대적 나이와 상대적 나이 모두 중요함. 80대가 주를 이루는데 20대가 있을 때 문제는 발생하게 됨. 따라서 생물학적 나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남은 수명, 기대수명은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사무직에서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고령화의 경우, 유럽은 7%에서 14%가 되는데 115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18년이 걸렸음. 한국의 고령화는 시간적인 문제가 매우 큼. 즉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데 유년 인구가 고령 인구가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임.
-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이 4%에서 1%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음. 유럽에서는 결혼여부와 출생율은 상관이 없음. 이 양자의 관계가 초기에는 큰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지수함수 형태로 변화됨.
- 프랑스의 경우 도시 보다 농촌의 과소화 및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임. 인구가 유입되어도 유입된 인구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인구유입의 동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인구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중요한 문제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일자리의 절대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안좋은 일자리의 기피 및 3D업종에 대한 미스매치로 실업률이 증가함.
- 독일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난민이 감소하였지만, 노동력의 부족으로 최근 5년전부터 시리아와 이라크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음.
- 인구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임.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임. 과거에는 노년층이 젊은세대를 도와 준 사회였다면, 앞으로는 젊은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임.
- 프랑스의 출생인구는 약 2만명 정도로 현상 유지되고 있음. 반면 이태리와 스페인의 경우 출생율이 감소하고 있음. 그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출산율과 사망률의 변화가 인구구조 변화를 야기함. 향후 현재 출산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남녀관계가 평등해지면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에 대한 지불을 감소시키고 있음.
- 인구를 인구적 측면, 환경적 측면, 그리고 개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우선 인구적 측면에서는 인구의 규모, 인구 성장률, 공간적 분포 및 밀도, 연령 구조의 4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대 지역적, 도시환경, 경관의 측면에서, 그리고 개발적 관점에서는 경제, 인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향후 인구정책에서 환경적 난민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향후 사회적 갈등에 의한 이동보다는 자연적 재해에 의한 이동이 증가할 것임. 그러나 사회적 갈등에 의한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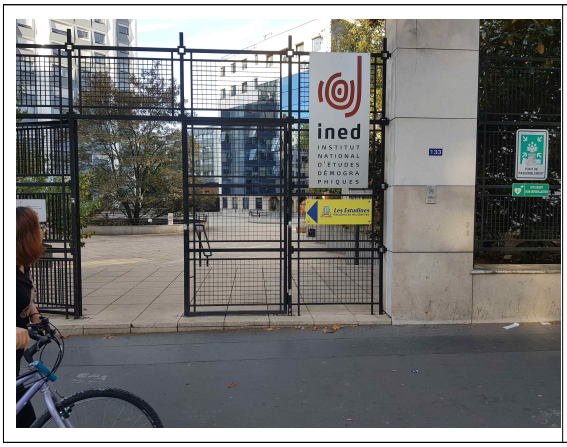
이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구조임. 반면 자연적 재해에 의한 이동은 일시적·대규모적이지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음. 앞으로 인구의 문제를 인구와 환경의 관계,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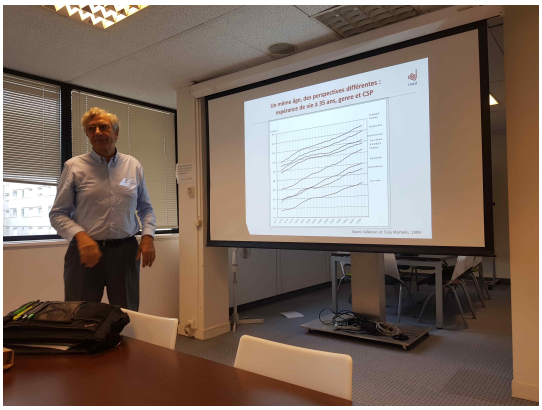
- 프랑스의 인구정책은 인구정책이라기 보다는 가족정책임.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를 기초로 추진되기 때문임. 다자녀인 경우 부자가 더 많음.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좌파정부는 비판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인구감소는 없지만,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에 대한 별도의 인구정책이 존재하지 않음. 프랑스의 인구정책은 가족수당과 baby box 등의 통합지원으로 이루어짐. 그리고 한국에서 출산장려금을 증가하는 정책보다는 학비 무상과 건강보장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한편 프랑스의 경우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에 그간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시 사 점

- 프랑스의 별도의 인구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가족보장제도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음.
- 현재 프랑스의 인구의 관점에서 인구와 환경, 그리고 개발의 3가지 차원에서 다면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단순히 인구의 규모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지 않음.
- 프랑스의 자녀수당에 대해서 내부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자녀인 경우 대부분 부자이기 때문임. 그러나 프랑스 인구정책의 근간은 가족수당과 baby box가 중심을 이루고 잇음.
- 프랑스의 경우 그간 남녀평등 및 여성의 경제참여율 제고가 출산율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서양의 경우는 결혼이 출산과 연결되지 않는 특징을 동양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관련사진





7. 후베시 도시재생 사례조사

○ 일　　시: 2018년 9월 21일(금)

○ 담 당 자: Michel　DAVID(micheldavid59@wanadoo.fr)

○ 목　　적: 후베시 도시재생 및 지역의 경제활성화 내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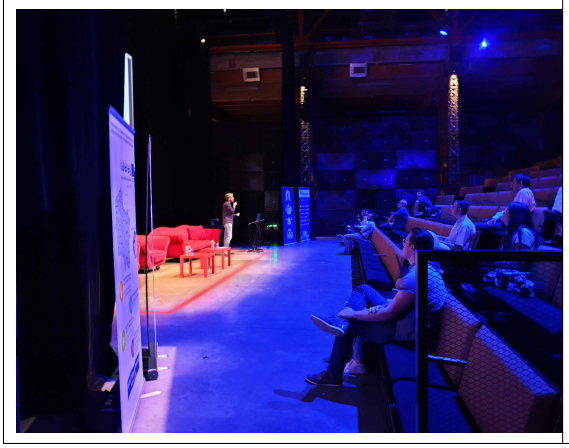
○ 주요내용

- 후베시는 19세기의 대표적 섬유도시였지만, 현재는 실업율이 30% 이상이고, 주거민의 40%가 빈곤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임. 후베시의 최대 인구는 13만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96000명 정도임. 이중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45%에 해당됨.
- 후베시는 도시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건물을 새로운 용도로 개발·사용하고, ICT와 비디오산업 등의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음.
- 후베시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이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상태가 나쁜 주거시설을 어떻게 보수 및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무슬림 등의 이민자와 사회적 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임.
- 후베시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용과 기반을 확보해 나가기를 시도하였고, 그 일환으로 음악학교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100개 정도의 거리예술이 운영되고 있음.
- 후베시는 패션의 대기업과 협력하여 소규모 제품생산시 연계하는 공장기능을 병행하였음. 즉 대기업의 시제품 및 소량생산을 위탁받는 형태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갔음.
- 기존의 공장시설을 재활용하여 지역자영업자의 모임, 협동조합의 작업장 제공 등을

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공간은 비영리기관이 운영하고 있고, 이들 공간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후베시의 경우 빈집의 상태가 너무 불량하고 많아서 새롭게 건설할 예정에 있음. 그리고 중앙역과 시장을 연결하는 가로망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기존의 이용도의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후베시의 Daniel ESSA는 시리아 출신 난민자가 디자인인 팝업공간임. 이 공간은 일시적으로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공간이고, 주 이용자는 신생기업임.
- 후베시의 MUSEE Festival은 예전에 수영장으로 활용한 곳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임. 현재 후베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연간 6만명이 사용하고 있음. 2017년에 시작한 곳인데, 하나의 소재로 접근한 것이 성공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 후베시에 있던 많은 공장의 공간을 3D, Digital, VR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인력이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후베시 도시재생의 한 가지 특징은 도심에서 남과 북으로 연결공간의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임. 과거 단절된 공간을 연결해 공간재생을 하였고, 공공주택, 학교, 사업시설의 적절히 배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후베시의 노동자 불량주거지역은 안전의 이유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 범죄 및 안전이 매우 취약한 곳으로 외지인의 방문이 힘든 곳으로 판단됨.

○ 시 사 점

- 후베시는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방치된 공장건물을 새로운 도시재생의 요소로 활용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
- 기존의 공장시설을 창업공간, 전시공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이들 공간에 젊은이들이 오게했다는 측면이 매우 인상적임.
-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시재생을 통해 단절된 공간구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점임.

○ 관련사진